우리나라 製造業의 市場構造*

李 奎 億
李 在 亨
金 周 勳

Ⅰ. 序 言

 우리나라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画
의 실시와 함께 본격적으로 市場經濟體制를

저항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經濟政策基調
는 1981년 4月부터 시행된 「獨占規制 및 公正
去來에 관한 法律」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 法
律은 종래와 같은 政府의 직접적인 市場介入
이 최대한 배제된 가운데 市場機能의 無制限
작용을 통하여 經済가 발전될 수 있도록 競争
의 인 市場構造를 조성하고 公正한 市場行態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市場의 構造는 市場行動 및 成果와 더불어
市場의 성격을 규정하는 三脚의 하나이지만
市場行動과 成果는 결과적으로 市場構造에 영
향을 줄 때 이면 市場構造는 經濟活動의 動
機가 변하지 않는다면 市場行動과 成果에 원
인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市場가
 앞으로 市場經濟體制를 迅速시키고자 한다면
市場構造의 推移와 特性을 파악하는 것이 진
오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本報는 우리나라 製
造業部門의 市場構造を 분석하고자 한다.

著者(1977, 1981)는 이미 1970年, 1974年,
1977年 統計的分析을 통하여 外国の市場構造
의 양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本報에서는 1981
Ⅱ. 製造業部門의

産業構造変化

1977년~1981년의 4년간 우리나라의 製造業部門은 事業體數와 就業面에서 각각 1.25배와 1.06배 증가하였으며 出荷 및 附加価値는 不変価格으로 각각 1.37배와 1.45배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成長의 내용을 産業別로 보면 (附表1) 1, 飲食料品 및 飲料, 鐵鋼製品 등 開発初期에 우리 경제를 주도하였던 輕工業部門의 出荷額 증加는 難看한 만큼, 化學·石油·石炭·鋼材·肥料製品, 非金屬礦物製品, 第1次 金屬, 組立金屬·機械 및 製造 등 重化學工業의 성장은 그만히 계속되고 있다. 이는 同期間中 國內産業的 構造調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事業體數와 就業面의 변화를 보면 일관 명백해진다. 즉 輕工業分野에의 事業體數 增加는 年平均 2% 내외임에 반하여 重化學工業分野에서는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従業員數도 輕工業分野에서는 감소하였지만 重化學工業分野에서는 대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 기간中 製造業部門의 實質附加價值 增加率는 年平均 9.8%로 같은 기간의 GNP成長率 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製造業部門이 우리 경제成長의 原動力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實質附加價值의 成長率도 역시 重化學工業分野에서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鐵鋼·衣服 및 가죽産業이 外形으로는 成長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實質附加價值 增加率은 年平均 12%로서 製造業平均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産業의 生産模式이 변화하여 高附加價值産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附表 1, 事業體規模別 製造業 構成比

<table>
<thead>
<tr>
<th>事業體規模 (從業員)</th>
<th>事業體數</th>
<th>從業員</th>
<th>出荷</th>
<th>附加價值</th>
</tr>
</thead>
<tbody>
<tr>
<td>1977/198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49</td>
<td>78.0</td>
<td>16.1</td>
<td>17.4</td>
<td>8.3</td>
</tr>
<tr>
<td>50~99</td>
<td>9.0</td>
<td>9.1</td>
<td>8.9</td>
<td>10.5</td>
</tr>
<tr>
<td>100~299</td>
<td>8.9</td>
<td>7.6</td>
<td>21.0</td>
<td>3.1</td>
</tr>
<tr>
<td>300 이상</td>
<td>4.1</td>
<td>3.1</td>
<td>54.8</td>
<td>9.6</td>
</tr>
</tbody>
</table>

的 事業體數 增加는 年平均 2% 내외임에 반하여 重化學工業分野에서는 10%선에 이르고 있으며, 従業員數也 輕工業分野에서는 감소하였지만 重化學工業分野에서는 대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 기간中 製造業部門의 實質附価值 增加率는 年平均 9.8%로 같은 기간의 GNP成長率 4.3%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製造業部門이 우리 경제成長의 原動力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實質附価値의 成長率도 역시 重化學工業分野에서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그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鐵鋼·衣服 및 가죽産業이 外形으로는 成長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實質附価値 增加率은 年平均 12%로서 製造業平均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 産業의 生産模式이 변화하여 高附価値産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附表 2, 製造業部門規模別 轉移

<table>
<thead>
<tr>
<th>轉移</th>
<th>事業體數</th>
<th>從業員</th>
<th>出荷</th>
<th>附加價值</th>
</tr>
</thead>
<tbody>
<tr>
<td>1977 (A)</td>
<td>26,726</td>
<td>1,919</td>
<td>15,207</td>
<td>5,597</td>
</tr>
<tr>
<td>1978 (B)</td>
<td>33,431</td>
<td>2,044</td>
<td>20,890</td>
<td>8,195</td>
</tr>
<tr>
<td>(B)/(A)</td>
<td>1.25</td>
<td>1.06</td>
<td>1.37</td>
<td>1.45</td>
</tr>
</tbody>
</table>
시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수의 산업의 3.1%에 불과한 소수의 
사례이기 때문에 가전의 48.9%, 출고 및 죽사의 67.7%와 65.2%를 
차지하고 있어 고도의 집중 현상은 나타내고 있다. 물론 아니라 
가전의 산업이 견주 어려가 출고 및 죽사의 성장율이 대규모 가전의 
생산량을 높아해오므로 오히려 가전의 산업의 규모의 
가격은 더욱 확대되었다. 예로서 대규모 가전 
의 가전의 산업이 출고 및 죽사의 성장율이 각각 3.1배 
와 2.8배가 증가하였으나 가전의 산업의 규모가 2.3배와 2.2배에 불과하다.

이상에서 개별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전의 산업은 1977년 1981년에 산업의 산업과 
가전의 산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당연히 각 산업의 산업의 산업에 있어서의 변화 
가 조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이용을 조사하기로 하며, 우선 본론에 필요한 
지수를 결하여 논의한다.

III. 집중지수의 類型과 性格

1. 構造지수의 類型

市場構造를 추정하는 지수는 成果지수와構 
造지수로 나누어진다 1). 成果지수는 價格, 創 
誤 등과 같은 市場成果를 가중으로, 集中度를 
나타내려는 것으로서 이는 本論의 性格지 
析에서 계의하기로 한다. 構造지수는 計算範 
圍에 따라 다시 少數 大企業의 市場支配力 
을 추정하는 傾向과 集中企業間 市場支配 
力의 不均等 程度를 추정하는 相對的 指數로 
구분할 수 있다. 構造지수是個別 企业的 市場 
占有率(S)과 市場內 全體企業(r)과의 二 
가지 構造지수로서 

CR_k는 한 市場에서 上位 k企業의 
占有率의 비중을 그대로 나타내므로 직감의 
이해와 계산상의 簡便性에 利點이 있지만 상 
위 k企業間的 相對的 规模差距과 市場내 全體 
企業間的 不均等度를 정점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 H는 S의 제곱의 음이므로 市場占有率 
이 클수록 指數의 값이 크기 반영되며, 따라서 
S의 값이 클수록 上位企業에 의한 集中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E는 市場間 構造의 비슷 
한수록 競争이 일관해질 것이다라는 논리적 근 
거에 입각하여 物理學의 Boltzman 法則을 採 
用한 것으로서 指數의 값이 클수록 獨占度가 낮 
은 것을 뜻한다. 그래서 E는 各企業占有率과 
企業體系의 市場에 일관성 있게 반응하지 않 
으며 指數의 값이 1을 넘는 경우가 많아 해석이 
어서 하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RE는 E의 
論理의 性格을 유지하면서 指數의 값이 다른 指

<table>
<thead>
<tr>
<th>表3</th>
<th>構造指數의 類型</th>
</tr>
</thead>
<tbody>
<tr>
<td>指 數名</td>
<td>定 義 式</td>
</tr>
<tr>
<td>上位 k企業 集中率</td>
<td>CR_k = \frac{1}{n} \left(\frac{k}{n+1}\right) S_k, k \leq n</td>
</tr>
<tr>
<td>Herfindahl 指數</td>
<td>H = \frac{1}{n} \sum_{i=1}^{n} S_i^2</td>
</tr>
<tr>
<td>Entropy 指數</td>
<td>E = -\frac{1}{n} \sum_{i=1}^{n} S_i \log_2 S_i</td>
</tr>
<tr>
<td>相對的 Entropy 指數</td>
<td>RE = \frac{E}{\log_2 n}</td>
</tr>
<tr>
<td>Gini 指數</td>
<td>G = \frac{1}{2} \left(\frac{1}{n+1} + \frac{1}{n} \sum_{i=1}^{n} S_i \right)</td>
</tr>
<tr>
<td>Horvath 指數</td>
<td>CC = S + \frac{2}{n} \sum_{i=1}^{n} S_i \left[1 + (1 - S_i) \right]</td>
</tr>
</tbody>
</table>

2. 指數間 相関關係

産業의 规模를 측정하는 變數에는 出荷額, 業務, 資産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本稿에서 는 市場構造의 变化를 분석의 主要象으로 하므로서 이중에서 市場의 外部적인 状況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出荷額을 规模變數로 제택한다. 이와 같이 规模變數가 선정되어도 構造指數는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다항함으로서 統計分析를 함에 있어서 指數의 等級문제가 악화된다.

가 指數는 理論的 属性을 달리 하지만 실제 統計에 적용하는 경우 相關關係가 높은 것이 많다. 이러한 指數의 相關關係가 충분히 높다면 分析的 目的이 여러 指數를 사용하여 보다 나은 計測值을 구하려는 데에 있지 않은 이상, 여러 指數 중 비교적 제산이 간편하고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는 것이 필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필요로 하는 指數를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因子分析(factor analysis)을 시도한다. 이 技法의 肢本는 指數間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因子를 추출하여 各 指數의 個別因子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알아내는 것이다①.

전체 製造業에 걸쳐 얻어진 指數들로부터 추출한 몇 因子들은 지금까지 밑은으로 기대하고 있던 자 指數의 属性에 일치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因子分析技法을 적용한 결과는 〈表 4〉와 같다. 이 表에서 統計的 占有率과 企業體數에 의해 구성되는 CR, H, E, CC 등이 因子 1 (統計的 占有率 및 企業體數)에 대하여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CR는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거꾸로 企業의 不均等度인 因子 2에 대해서는 CR가 높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CR, H 등은 낮게 반응하고 있다.


<table>
<thead>
<tr>
<th></th>
<th>因</th>
<th>子 1</th>
<th>因</th>
<th>子 2</th>
</tr>
</thead>
<tbody>
<tr>
<td>CR</td>
<td>0.93318</td>
<td>-0.04205</td>
<td></td>
<td></td>
</tr>
<tr>
<td>H</td>
<td>0.9792</td>
<td>-0.03198</td>
<td></td>
<td></td>
</tr>
<tr>
<td>E</td>
<td>-0.93826</td>
<td>0.14218</td>
<td></td>
<td></td>
</tr>
<tr>
<td>RE</td>
<td>-0.78337</td>
<td>0.46664</td>
<td></td>
<td></td>
</tr>
<tr>
<td>CC</td>
<td>0.98822</td>
<td>0.00423</td>
<td></td>
<td></td>
</tr>
<tr>
<td>G</td>
<td>-0.21390</td>
<td>0.77625</td>
<td></td>
<td></td>
</tr>
</tbody>
</table>

② CR와 E의 理論的 構成의 차이로 볼 때 이 결과는 統計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표 5〉 集中指數間 單純相関係數(1981)

<table>
<thead>
<tr>
<th></th>
<th>H</th>
<th>E</th>
<th>RE</th>
<th>CC</th>
<th>G</th>
</tr>
</thead>
<tbody>
<tr>
<td>CR3</td>
<td>0.83962</td>
<td>-0.95930</td>
<td>-0.63809</td>
<td>0.91202</td>
<td>-0.00326</td>
</tr>
<tr>
<td></td>
<td>0.97981</td>
<td>-0.97441</td>
<td>-0.62695</td>
<td>0.96913</td>
<td>-0.05149</td>
</tr>
<tr>
<td>H</td>
<td>-0.86139</td>
<td>-0.81422</td>
<td>-0.68026</td>
<td>0.97354</td>
<td>-0.01005</td>
</tr>
<tr>
<td></td>
<td>-0.96725</td>
<td>0.99531</td>
<td>0.00050</td>
<td></td>
<td></td>
</tr>
<tr>
<td>E</td>
<td>0.62880</td>
<td>-0.90841</td>
<td>-0.94888</td>
<td>0.01471</td>
<td>0.13468</td>
</tr>
<tr>
<td></td>
<td>0.56137</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RE</td>
<td>-0.78445</td>
<td>-0.68976</td>
<td>-0.01888</td>
<td>0.15850</td>
<td></td>
</tr>
<tr>
<td>CC</td>
<td>0.00141</td>
<td>0.01437</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註: 區 指數間 係數 上位數字는 Pearson 單純相関係數, 下位數字는 Spearman 序列相関係數.

3. 製造業部門의 企業規模分布

絕對的 度指數系列은 市場集中의 程度를 나타내어 주기는 하지만, 그 市場內 企業들의 分布狀態를 한 눈에 보여 주지는 못한다. 但나 企業の 規模과 單純統計的 分布(Statistical distribution)를 따른다면 그 分布的 理論(Theory)만으로도 企業의 分布狀態를 파악할 수 있으며, 統計學的 分布는 製造業 全體와 特定產業의 構造分析에 매우 유용한 道具가 될 수 있다. 有 Graeco, 統計學的 分布로서 常用 利用되는 代數正規分布(log-normal distribution)가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但但,에 우리나라에서 企業規模 分布의 大小를 中, 小分類 或或 그 以外의 產業으로 極할 경우 特殊적으로 企業體의 標凖 分布가 적여져 正規分布를 따르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製造業 전체를 그 大小으로 極하고 있다.

〈표 6〉 製造業部門의 企業規模分布(1981)

<table>
<thead>
<tr>
<th>譲備規模</th>
<th>企業體數</th>
<th>構成比(%)</th>
<th>理論的 期待值</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實際値</td>
<td></td>
</tr>
<tr>
<td>500~</td>
<td>597</td>
<td>1.7858</td>
<td>1.7860</td>
</tr>
<tr>
<td>300~499</td>
<td>450</td>
<td>1.3461</td>
<td>1.6965</td>
</tr>
<tr>
<td>200~299</td>
<td>725</td>
<td>2.1666</td>
<td>2.1155</td>
</tr>
<tr>
<td>100~199</td>
<td>1,832</td>
<td>5.4800</td>
<td>5.8667</td>
</tr>
<tr>
<td>50~99</td>
<td>3,032</td>
<td>9.0694</td>
<td>9.2953</td>
</tr>
<tr>
<td>20~49</td>
<td>6,065</td>
<td>18.1418</td>
<td>17.2645</td>
</tr>
<tr>
<td>10~19</td>
<td>8,679</td>
<td>25.9490</td>
<td>15.1695</td>
</tr>
<tr>
<td>5~9</td>
<td>12,055</td>
<td>36.0593</td>
<td>46.8120</td>
</tr>
<tr>
<td>計</td>
<td>33,431</td>
<td>100.0000</td>
<td>100.0000</td>
</tr>
</tbody>
</table>

註: 総 叡 議 業體數 分布を 代數正規分布に 假定한 때 μ와 σ²는 각각 11.56과 0.61이다.

4) 이를 利用하여 市場構造を 나타내는 역 관광에 利용하는 예로서 Aaronovitch and Sawyer (1975), Pras (1976) 등을 참고.
의 99% 信賴限界인 15.0836보다 나단히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製造業部門의 전체企業
分布는 代數正規分布을 따르다고 말할 수 없
다. 물론 中分類産業 수준에서 企業體數가 많
은 産業을 선택하여 代數正規分布 여부를 檢
證할 수도 있지만, 企業의 代數正規分布가 갖는 經濟學的意義가 분명하므로 이 이상의
分析은 생략한다.

IV. 製造業部門의 集中推移

1. 一般集中率

一般集中率(overall concentration ratio)은
産業分類에 관계없이 全産業製造業에서 소수의
上位企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려는 것으
로서, 出荷基準과 履債基準으로 1977년과 1981
年을 대비하여 〈表 7〉과 같다.

<table>
<thead>
<tr>
<th></th>
<th>出荷基準</th>
<th>履債基準</th>
</tr>
</thead>
<tbody>
<tr>
<td></td>
<td>50大</td>
<td>100大</td>
</tr>
<tr>
<td>1977</td>
<td>35.0</td>
<td>44.9</td>
</tr>
<tr>
<td>1981</td>
<td>36.6</td>
<td>45.9</td>
</tr>
</tbody>
</table>

이 表에서 보면 小数 大企業에 의한 集中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며 특히 出荷面에서는
一般集中率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50
大企業을 기준으로 할 때 1977년에는 全製造
業體數의 0.19%가 諸出荷의 35.0%, 1981년
에는 諸製造業體의 0.15%가 諸出荷의 36.6%
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規模的 經
濟性, 多工場企業의 增加, 産業別 成長速度의
차이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
지만 여하간 이는 經濟力集中化의 基盤을 형
성하고 있는 중요한 사로 식작된다.

또한 履債面보다는 出荷面에 있어서 一般集
中率이 젤 البع이 높으므로 上位 大企業들이 生産規
模의 經濟性과 市場力에 있어서 여러 産業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적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
다.〈附表 2〉에서 100大 出荷企業의 産業分布
을 보면 産業用化學物, 纖維・食料品, 第1次
鋼鋼, 鐵鉄製造業等에 주로로서 100大
産業中 纖維・衣服産業의 大企業은 出荷基準
으로는 19개, 履債基準으로는 32개로서 이 産
業은 아직도 우리 나라 製造業部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産業用化學物,
石油精製, 第1次 鋼鋼産業의 大企業은 出荷基
準으로는 31개인 반면, 履債基準으로는 7개에
불과하여 이들 産業이 全産業적인 製造業으로
서 資本支配的(capital-dominant)인 동시에 資
本集約的(capital-intensive)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같은 분석에서 보면 纖維・衣
服・電氣機械는 勞動支配의 내지 勞動集約의
産業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⑤

2. 産業集中率

産業集中率(industrial concentration ratio)
은 産業内の 集中狀態를 측정하는 것으로
本稿에서는 331개 細細分類産業別 上位 3社의

⑤ 要素集約度와 要素支配度의概念에 관하여는 Gold
出荷集中率 (CR) 을 대상으로 한다. <표 8> 에서 1981년의 集中率分布을 보면 CR4 ≥ 60% 인 高集中産業이 176개로 전체 製造業내 細分産業数의 52.9% 를 차지하고 이들의 出荷額 構成比도 54.3%에 달하여 우리의 製造業은 高集中으로 특징치될 수 있다.

1977년과 비교하면 CR4 < 40% 인 低集中産業이 59개에서 75개로 증가함으로써 競争의 構造을 갖는 産業이 數의로는 증가하였지만 出荷規模面에서는 60% ≤ CR4 ≤ 80% 인 中位集中産業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여러 産業의 비중을 강화하였다. 이 추세는 1977~81년간 事業體數가 25.1%나 급증하면서 市場의 独占의 大規模市場의 일부가 外占化되는 한편 다수의 새로운 産業이 아직은 규모가 작으나 成長可能性이 큰 重化學分野에 진입한 결과로서 해석된다. 또한 비록 현재의 競争의 市場의 규모는 작지만 그 絕對數는 증가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産業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製造業 全業의 競争度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라는 중요한 指示點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製造業部門의 構造変化process에서 나타난 一般的 현상이며 個別産業별로는 오히려 集中率이 증가한 경우도 많다. <附表 3>에서 330개 産業中 集中率 變化幅이 ± 5% 포인트 이내로서 安定의인 構造을 가진 것이 126개로 전체의 38.1%에 해당하며, 반대로 ± 20% 포인트 이상의 大幅의인 變化를 보인 것도 68개로 全業の 20.6%에 달한다. 全般的으로 集中率이 5%포인트 이상 變化한 243개 産業에서 集中率이 增加한 것은 115개, 減少한 것은 128개인데 이와 같이 비교적 대등한 兩分 倍率은 中分類 産業別으로도 異な지 않으므로 결론 1977~81년間産業成長에 따른 集中率變化 趨勢는 規則의이 아닐을 알 수 있다. 그 原因은 大部分의 産業이 産業構造외 企業間關係가 定型化되어 있지 않은 産業내 變換期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다수産業別集中率의 變化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平均集中率(average concentration ratio)을 검토하기로 한다. 平均으로는 單純平均과 出荷額을 加重値로 한 加重平均을 적용하여, 産業形態에 따른 차이 의 여부를 검출하기 위하여 對象産業을 生産財與消費財産業으로 나누고, 後者は 다시 耐久財와 非耐久財로 分割하였다.

1981년의 集中率은 生産財産業이 消費財産業보다 높은 바 <表 9> 이서는 消費財市場

<table>
<thead>
<tr>
<th>&lt;표 8&gt; 集中率 階層別 産業分布</th>
</tr>
</thead>
<tbody>
<tr>
<td>CR4(%)</td>
</tr>
<tr>
<td>80~100</td>
</tr>
<tr>
<td>60~80</td>
</tr>
<tr>
<td>40~60</td>
</tr>
<tr>
<td>20~40</td>
</tr>
<tr>
<td>0~20</td>
</tr>
<tr>
<td>計</td>
</tr>
</tbody>
</table>

6) 1977년과 1981년에 적출된 細分産業數は 400개이 나 出荷額이 集計되지 않은 産業 및 産業의 独立적 性格이 미약한 細分産業數을 제외한 331개만을 대상으로 함.
이 생산적에서 시장구조는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는 논점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생산요인의 구조에 있어서의 소프트웨어 구조나 비소프트웨어 구조의 평균적으로 높은 것은 소프트웨어 구조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의 시장구조가 심하여 상업적 본질과 상이한 것으로 보아 yielding 형식으로 이어진다.

V. 商品市場構造의 變化

1. 市場類型別 推移

市場構造의 質性分析의 있어서 市場構造의 分類基準은 特定市場의 數規模에 대한 市場內 각企業 즉 市場企業의 相對的 規模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 市場構造의 主要로여기에서 企業的市場構造의 정의로 나머지 企業들은 市場의位置에 차지하지 못하여 市場은 사실상 單一市場의 개념이 된다.

따라서 市場構造는 上位企業과 他企業間의 相對的 規模를 결정한다는 일반적인 역할을 하며 된다.

市場構造의 구체적인 분류에 관하여는 獨占的 競爭(monopolistic competition)을 특이점인 市場構造로 인하하여 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으나 ⑦ 또한 企業의 市場行動은 市場內의 企業的市场構造의 두 가지는 논거도 있지 만 ⑧ 본稿에서는 獨占的 競爭市場을 분리하지 않는 한계의 市場構造의 独占, 複占, 競争的 내 가지로 분류한다. 複占

<table>
<thead>
<tr>
<th>市 場 類 型</th>
<th>獨 占</th>
<th>複 占</th>
<th>寧 占</th>
<th>競 爭</th>
<th>計</th>
</tr>
</thead>
<tbody>
<tr>
<td></td>
<td>商品数</td>
<td>出荷額</td>
<td>商品数</td>
<td>出荷額</td>
<td>商品数</td>
</tr>
<tr>
<td>年 度</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70</td>
<td>442</td>
<td>110</td>
<td>279</td>
<td>204</td>
<td>498</td>
</tr>
<tr>
<td>(29.6)</td>
<td>(18.7)</td>
<td>(16.3)</td>
<td>(35.1)</td>
<td>(18.5)</td>
<td>(39.9)</td>
</tr>
<tr>
<td>1971</td>
<td>567</td>
<td>2,264</td>
<td>425</td>
<td>1,530</td>
<td>674</td>
</tr>
<tr>
<td>(31.6)</td>
<td>(16.3)</td>
<td>(20.1)</td>
<td>(11.0)</td>
<td>(32.0)</td>
<td>(33.9)</td>
</tr>
<tr>
<td>1981</td>
<td>521</td>
<td>4,878</td>
<td>211</td>
<td>2,070</td>
<td>1,085</td>
</tr>
<tr>
<td>(23.5)</td>
<td>(11.0)</td>
<td>(5.6)</td>
<td>(4.7)</td>
<td>(4.0)</td>
<td>(50.9)</td>
</tr>
<tr>
<td>市場規模(198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0億*</td>
<td>404</td>
<td>266</td>
<td>160</td>
<td>135</td>
<td>675</td>
</tr>
<tr>
<td>(29.8)</td>
<td>(17.0)</td>
<td>(8.8)</td>
<td>(4.9)</td>
<td>(6.1)</td>
<td>(13.0)</td>
</tr>
<tr>
<td>10～100億*</td>
<td>36</td>
<td>260</td>
<td>16</td>
<td>112</td>
<td>132</td>
</tr>
<tr>
<td>(14.3)</td>
<td>(14.5)</td>
<td>(6.3)</td>
<td>(6.3)</td>
<td>(52.4)</td>
<td>(52.9)</td>
</tr>
<tr>
<td>100～300億*</td>
<td>47</td>
<td>779</td>
<td>18</td>
<td>288</td>
<td>137</td>
</tr>
<tr>
<td>(14.6)</td>
<td>(13.6)</td>
<td>(6.5)</td>
<td>(5.0)</td>
<td>(42.5)</td>
<td>(42.5)</td>
</tr>
<tr>
<td>300億*</td>
<td>34</td>
<td>3,574</td>
<td>17</td>
<td>1,534</td>
<td>141</td>
</tr>
<tr>
<td>(11.9)</td>
<td>(10.2)</td>
<td>(5.9)</td>
<td>(4.4)</td>
<td>(49.3)</td>
<td>(51.7)</td>
</tr>
</tbody>
</table>

備註: (*) 意思是 構成比。
둘 둘로 고려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두 개의 요인들을 정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전형적인 독점과 우위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시장구조의 분류는 상호 관계가 적어 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독점과 상위기업간 경제적 비례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기로 한다.

독점: $CR_i \geq 80\%$, $S_i/S_0 \geq 10.0$

두점: $CR_i \geq 80\%$, $S_i/S_0 \leq 5.0$, $S_0 \leq 5$

寡占: $CR_i \geq 60\%$ (독점과 두점 제외)

競争: $CR_i < 60\%$


또한 시장구조의 경쟁이 높을수록 상품구조의 측면을 보너는 '出荷額의' 構成비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예컨대 1981년의 경우 독점 상품의 '出荷額의' 측면은 23.5%와 11.0%인 반면, 競争 상품에 해당하는 측면은 각각 17.9%와 33.4%가 된다. 이것은 다소 선각적으로, 競争상품의 市場規模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다른 자료에서도 추출한다면 1981년에 市場規模가 50억원 미만이 1,354개 상품 가운데 독점 및 競争상품은 41.7%이며, 競争 상품은 8.5%에 불과하지만, 각주된 市場規模가 300억원 이상인 286개 상품에 있어서는 독점 및 競争상품은 17.8%, 競争 상품은 32.9%를 차지한다는 사실로 예상될 수 있다. 이는 市場規模가 높을수록 같은 조건이라면 競争이 융이란다는 일반적인 理論에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품市場 競争度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독점 상품이 전체 상품의 82.1%, '出荷의' 66.6%를 차지하고 있는 바 때문에 競争業部門에 있어서 독점의 현상은 아직도 심각하며, 다른 현재의 추세가 市場規模擴大에 따라 계속될다면 앞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2. 100大 상품市場

1981년의 '出荷額 100大 상품'의 産業集中的 분석은 다음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상품의 總出荷은 25.3억원으로 競争業 總出荷의 57.9%에 달하고 있
다. 1977년에는 총 商品數의 4.7%인 100大 商品의 出荷占有율이 55.9%이었으나 1981년에는 전체 商品數의 4.5%인 100大 商品이 出荷의 57.9%를 점유하므로 大規模 商品의 비중이 증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0大 商品의 市場構造에 있어서(表11 참조) 獨占과 복占은 1977년의 27개에서 1981년의 14개로 半減한 반면, 寡占은 35개에서 52개로 大幅 增가하였다. 이러한 변화양상은 앞서 100大 商品 出荷額의 分布에서도 저격한 商品市場 全體의 寡占化趨勢를 면밀히 보여주고 있는데 兩年度의 100大 商品의 내역을 비교하면 이期間 중 製造業部門의 增加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81년에 새로운 100大 商品에 포함된 27개 市場規模가 확대된 食料品 3種을 제외하고는 産業用化學物 4種, 石油化學製品 2種, 第1次 鐵鋼製品 4種, 運輸機器 4種, 電気機械器具 2種 등 거의 전부를 化學工業製品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1977년의 100大 商品中 밀착된 것에는 경, 비스켓, 앤드백, 新聞用紙 등 市場規模나 市場成熟度가 비교적 안정된 것과 生糑, 假髮 등 輸出이 滋減한 것, 그리고 스페어, 圓型織維, 角材, 핀타일 등 建築資材類가 있다.

### 表11 100大 商品市場構造의 推移

<table>
<thead>
<tr>
<th></th>
<th>市場類型</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td>
<td>獨占</td>
<td>複占</td>
<td>寡占</td>
<td>競爭</td>
<td></td>
</tr>
<tr>
<td>197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商品數</td>
<td>9</td>
<td>18</td>
<td>35</td>
<td>38</td>
<td></td>
</tr>
<tr>
<td>(生産財)</td>
<td>(8)</td>
<td>(13)</td>
<td>(16)</td>
<td>(22)</td>
<td></td>
</tr>
<tr>
<td>出荷構成比(%)</td>
<td>14.9</td>
<td>10.6</td>
<td>37.5</td>
<td>37.9</td>
<td></td>
</tr>
<tr>
<td>198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商品數</td>
<td>6</td>
<td>8</td>
<td>52</td>
<td>34</td>
<td></td>
</tr>
<tr>
<td>(生産財)</td>
<td>(5)</td>
<td>(5)</td>
<td>(37)</td>
<td>(22)</td>
<td></td>
</tr>
<tr>
<td>出荷構成比(%)</td>
<td>14.0</td>
<td>4.4</td>
<td>53.9</td>
<td>32.7</td>
<td></td>
</tr>
</tbody>
</table>

### 表12 同質性 指數의 産業別 分布

<table>
<thead>
<tr>
<th></th>
<th>0.0~0.2</th>
<th>0.2~0.4</th>
<th>0.4~0.6</th>
<th>0.6~0.8</th>
<th>0.8~1.0</th>
<th>1.0*</th>
</tr>
</thead>
<tbody>
<tr>
<td>197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産業數</td>
<td>3</td>
<td>54</td>
<td>77</td>
<td>50</td>
<td>71</td>
<td>57</td>
</tr>
<tr>
<td>(出荷構成比)</td>
<td>(6.2)</td>
<td>(22.5)</td>
<td>(25.5)</td>
<td>(16.0)</td>
<td>(24.6)</td>
<td>(5.6)</td>
</tr>
<tr>
<td>198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産業數</td>
<td>5</td>
<td>51</td>
<td>36</td>
<td>57</td>
<td>59</td>
<td>55</td>
</tr>
<tr>
<td>(出荷構成比)</td>
<td>(3.8)</td>
<td>(25.9)</td>
<td>(15.3)</td>
<td>(15.9)</td>
<td>(18.3)</td>
<td>(4.8)</td>
</tr>
</tbody>
</table>

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이 지수는 한 산업
의 상품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 주며
상품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산업은 
동질성이 높아 된다. 상품으로 
대표하여도 무방하게 된다.

1977년과 1981년
의 400개
의 산업은 1977
의 비중은 41.0
%로 나누어 30.2%였으나 1980년에는 
각각 36.2%와 23.1%로 높아하였다. 따라서 
조사 대상 중 전자부 산업의 상품동
질성이 높아 1981년에는 낮은 수준에 머
물어있는데 이 기간 중
상품의 비중은 5.0%에게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는 
상품의 동일성 
의 차이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중분류 산업별로 동질성 지수의 분포를 보면
(표 5), 化学製品類, 第1次
金屬類, 機械・ 
裝備類, 鐵道・衣服類
가 있어서 동질성
지수는 0.4 미만인
산업의 비중 및 수가 높 
만 아니라 동질성 지수는 20%포인트 이상 감소한
산업의 비중도 높다. 그러나 동질성 지수의 변화는
산업의 이지하는데 정연물의
多様性이 강화적 성격으로서 
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즉
20%포인트 이상 
동질성 지수
가 변화한 산업에 있어서 감소한
산업의 수가 증가한
산업의 수가 각각 38개와 38개로 
발생한다.

10) 産業差異調査方法에 따라 산업별로 
의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내 주며 
상품의 경제적 가치는 높을수록 그 산업은 
동질성이 높아 된다. 상품으로 
대표하여도 무방하게 된다.

Ⅵ. 制造業部門
産業構造의 特性

1. 産業分類方法의 特徵

본항에서는 『製造業統計調査報告書』에서
체계하고 있는 産業分類方法을 개선하여 이
報告書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고
파악하기 바로 그러한 分類・集計方式에 의한
결과를 통하여製造業의 特性을 발견하고자 한다.

製造業統計는 産業別으로 事業體(工場) 단위
로 조사되며 細分産業別 산업의 特性을 가지기로
작성된다. 産業別으로 작성할 때에는 事業體의
생산額 비중이 가장 큰 産業에 
의속시키며, 이 産業은 産業構造의 主産業
이라 한다. 예를 들어, 한 事業體가 아이스크림
(31123100)과 사이나(31340111)를 각각 10億
원과 5億원, 생산한다. 及 産業額 15億원이 모
두 事業體의 主産業이 아이스크림製造業
(31123)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事業體별로
는 물론 10億원과 5億원이 각각 産業構造
産業額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특별 産業의 경제학
의 市場狀況을 살기 위해서는 各産業에 
속한 構造商品의 値額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0).
이와 같은 추계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보기 위하여 균일적내의 분야총을 A, 의 그래프의 차이를 B로 할 때, \( |A - B| / B \)를 표준화하였으나, 여기에 나타난 수준이 제외된 303개의 금융 및 비금융 산업의 분야별 생산의 23.6%인 303개 산업은 차이가 0.3 이상이다.

그러나 두 가지 분야의 차이는 이것은 보다도 커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위의 차이가 두 가지 분야의 차이가 평균이 최악으로 비교한 것이므로 분석하므로 차이가 적어도 반드시 산업별 통계자료와 실질적 현장상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기 가공 및 유통(31113)은 페이프 기기 및 기타 제조 기기(31113111), 소비자(31113113), 고기 동조 및 유통(31113121) 등 9개 경우로 구성되어 있는 데, 375억원과 839억원으로 차이가 0.042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성품이 고기 가공 및 유통산 업의 상호의 소비품 출고액은 231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44억원이 자산업의 소비품 출고액이 있으며 반면 이 산업의 소비품 출고액이 아닌 업에서 범위를 벗어난 소비품 출고액은 608억원에 달하였으며 이러한 일차차 차이가 낮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2. 특화도와 합성도

위에서 지적한 문제는 이미 함축한 바와 같이, 양산물 및 소비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산업별 분야의 산업특성 특화도를 가정하기 위하여 특화도와 합성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특화도(primary product specialization ratio)는

\[
\text{특화도} = \frac{\text{생산가능한 출고액}}{\text{생산가능한 출고액}}
\]

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서 분모는 본분 1주의 산업 출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화도가 높음수

<table>
<thead>
<tr>
<th>(표 13) 産業出荷와 商品出荷産業集計의 差異 (1981)</th>
</tr>
</thead>
<tbody>
<tr>
<td>0~0.1</td>
</tr>
<tr>
<td>174</td>
</tr>
<tr>
<td>(46.6)</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표 14) 特化度의 包括度의 産業別 分布 (1981)</th>
</tr>
</thead>
<tbody>
<tr>
<td>中分類産業</td>
</tr>
<tr>
<td>--------------</td>
</tr>
<tr>
<td>食料品 및 食材</td>
</tr>
<tr>
<td>纖維・衣料 및 家具</td>
</tr>
<tr>
<td>製材・木材及び家具</td>
</tr>
<tr>
<td>食料・食品及び印刷・出版</td>
</tr>
<tr>
<td>化学・石油・化学製品</td>
</tr>
<tr>
<td>第一次産業</td>
</tr>
<tr>
<td>金屬製品・機械及び装備</td>
</tr>
<tr>
<td>他</td>
</tr>
<tr>
<td>計</td>
</tr>
</tbody>
</table>
특정산업의 기업들이 주산업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많이 기여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가정용 섬유제품 제조업(32122)의의 특화도는 0.813으로 이 기업은 주산업으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경쟁적으로 투자한 81.3%를 가정용 섬유제품이 차지하고 나머지 18.7%는 그 외 산업제품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화도는 산업별 분포는 (표 14), 영업이익과 화학제품의 산업의 특화도 차이가 크게 나온다. 이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 영업이익은 높고 임직원, 사업비, 재고 등으로 이산화된 산업에서 영업이익이 높은 산업은 '주산업' 산업의 특화도가 높으며, 산업의 특화도가 높으므로 임직원, 사업비, 재고 등으로 이산화된 산업에서 특화도가 높다(표 14). 특화도의 일반화 위주로는 특화도와 유사한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다. 1977년에 특화도가 0.7 이상인 산업이 68.7%였지만 1981년에는 26.6%로 감소하였고, 구조로 0.5미만인 산업은 같은 기간 중 14.1%에서 33.2%로 증가하였다.

특화도와 포함도를 생산별로 분석한 결과 산업의 특성은 더욱 무려하게 부각된다.

(1) 특화도와 포함도가 모두 낮은 산업 : 가정용 섬유제품은 산업의 특화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이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특화도는 0.7 이상으로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에 의하여 기여한 기업으로서 특화도가 낮다(표 14).

(2) 특화도는 낮지만 포함도가 낮은 산업 : 이 산업은 특화도가 낮은 산업 중에서 0.7 이상으로 기여한 기업의 특화도가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으로서 포함도가 낮다(표 14).
(표 15) 特化度와 包括度基準의 產業類型 例(1981)

<table>
<thead>
<tr>
<th>產業類型</th>
<th>特化度(%)</th>
<th>包括度(%)</th>
</tr>
</thead>
<tbody>
<tr>
<td>低</td>
<td>低</td>
<td>0.08, 0.10, 0.09, 0.08, 0.02, 0.27, 0.19, 0.19</td>
</tr>
<tr>
<td>高</td>
<td>低</td>
<td>0.91, 0.91, 0.96, 0.04, 0.99, 0.32, 0.93, 0.35</td>
</tr>
<tr>
<td>低</td>
<td>高</td>
<td>0.61, 0.81, 0.57, 0.78, 0.98, 0.85, 0.85, 0.85</td>
</tr>
<tr>
<td>高</td>
<td>高</td>
<td>0.84, 0.87, 0.77, 0.78, 0.91, 0.88, 0.80, 0.45</td>
</tr>
</tbody>
</table>

③ 特化度는 낮지만 包括度가 높은 産業：이 産業은 多産業으로 하는 企業의 多變化가 확
때되어 産業內 企業의 出荷額에서 이 産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産業內 企業에 의
한 市場進入도는 수준에 있다. 此而 産
業에서는 競争이 該當産業內 多生産物企業間
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該當企業間의 總體的
市場力関係를 파악하기는 힘든다.

④ 特化度와 包括度가 모두 높은 産業：이而
한 産業에서는 多産業의 企業에 있어서 多邊
化度가 낮으며 産業內 企業에 의한 市場進入
도 및 共同需求 産業의 범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此而 分類에 해당하는
1981년의 産業을 例시하면 다음과

(표 16) 特化度와 包括度의 分布
(1977年→1981年)

<table>
<thead>
<tr>
<th>包括度</th>
<th>特化度</th>
<th>(%)</th>
</tr>
</thead>
<tbody>
<tr>
<td>I</td>
<td>3.1→58.4</td>
<td>6.7→6.2</td>
</tr>
<tr>
<td>II</td>
<td>28.2→14.3</td>
<td>62.0→21.1</td>
</tr>
</tbody>
</table>

3. 多生産物企業과 多工場企業

이상에서 검출한 문제는 누차 저지하였듯이

(표 17) 多生産物企業의 現況(1981)

<table>
<thead>
<tr>
<th>商品數</th>
<th>1個</th>
<th>2個</th>
<th>3個</th>
<th>4個</th>
<th>5個</th>
</tr>
</thead>
<tbody>
<tr>
<td>企業數 (%)</td>
<td>19.59</td>
<td>5.07</td>
<td>1.87</td>
<td>2.6</td>
<td>2.7</td>
</tr>
<tr>
<td>出荷額 (%)</td>
<td>8.938</td>
<td>5.314</td>
<td>4.238</td>
<td>4.072</td>
<td>21.479</td>
</tr>
</tbody>
</table>

32
企業多邊化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產業에
관한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特定産業을 독
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企業多邊化를 企業의 측면
에서 보기 위해 多生産物企業(multiproduct
firm)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가 <表17>에 요약
되어 있다. 이 表에 의하면 単一生産物企業은

表18 多工場企業의 現況(1981)

<table>
<thead>
<tr>
<th>工場数</th>
<th>1個</th>
<th>2個</th>
<th>3個</th>
<th>4個</th>
<th>5個*</th>
</tr>
</thead>
<tbody>
<tr>
<td>企業數</td>
<td>31,867</td>
<td>509</td>
<td>112</td>
<td>27</td>
<td>101</td>
</tr>
<tr>
<td>[(%)</td>
<td>(97.7)</td>
<td>(1.6)</td>
<td>(0.3)</td>
<td>(0.1)</td>
<td>(0.3)</td>
</tr>
<tr>
<td>出荷額</td>
<td>29,321</td>
<td>7,215</td>
<td>2,659</td>
<td>1,416</td>
<td>5,220</td>
</tr>
<tr>
<td>[(%)</td>
<td>(64.0)</td>
<td>(15.7)</td>
<td>(5.8)</td>
<td>(3.1)</td>
<td>(11.4)</td>
</tr>
</tbody>
</table>

우리나라의 産業開発方向을 조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Ⅶ. 結 言

本稿에서는 1977～81年間 우리 나라 産業界
部門의 市場構造 推移를 여러 각도에서 觀察
하였는데 이로부터 推論할 수 있는 重要なる 構
造の 特性과 이에 따른 政策의 示現点を요약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期間 중 製造業部門은 特히 高度化
産業의 産業別 推移와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多生産物企業의 現況(1981)

본稿에서는 1977～81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部門의 市場構造 推移를 여러 각도에서 觀察
하였는데 이로부터 推論할 수 있는 重要なる 構
造의 特性과 이에 따른 政策的 示現点を요약
하던 다음과 같다.

첫째, 이 期間 중 제조업部門은 特히 高度化
産業의 産業別 推移와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서

本稿에서는 1977～81년간 우리나라 제조業
部門의 市場構造 推移를 여러 각도에서 觀察
하였는데 이로부터 推論할 수 있는 重要なる 構
造의 特性과 이에 따른 政策의 示現点を요약
하던 다음과 같다.

<?>

표18 多工場企業의 現況(1981)

<table>
<thead>
<tr>
<th>工場数</th>
<th>1個</th>
<th>2個</th>
<th>3個</th>
<th>4個</th>
<th>5個*</th>
</tr>
</thead>
<tbody>
<tr>
<td>企業數</td>
<td>31,867</td>
<td>509</td>
<td>112</td>
<td>27</td>
<td>101</td>
</tr>
<tr>
<td>[(%)</td>
<td>(97.7)</td>
<td>(1.6)</td>
<td>(0.3)</td>
<td>(0.1)</td>
<td>(0.3)</td>
</tr>
<tr>
<td>出荷額</td>
<td>29,321</td>
<td>7,215</td>
<td>2,659</td>
<td>1,416</td>
<td>5,220</td>
</tr>
<tr>
<td>[(%)</td>
<td>(64.0)</td>
<td>(15.7)</td>
<td>(5.8)</td>
<td>(3.1)</td>
<td>(11.4)</td>
</tr>
</tbody>
</table>

33
지는 않지만 산업수에 있어서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가 클수록 경쟁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두려하다. 이것은, 상품, 시장구조의 개별로도 볼 수 있는데 비록 현재의 시장구조에 대하여 수요이론과, 특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전체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전체적으로 경쟁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산업성장률과, 집중도변화 간에는, 일반적으로, 산업에 개인적인, 상품성격성도 일반적으로, 지하하였지만 특별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이, 기본의, 시장구조, 그리고, 높아졌을 때의, 시장구조가, 상당적으로, 가격의, 내지, 경쟁력, 높이, 결정하며, 산업정책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된다.

다섯째, 이와 같은 산업구조, 내지, 시장구조, 변화의, 이론에는, 복수개, 복수개 기업의, 확장에, 의한, 시장, 급속히, 점령되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제품구조,의, 성장과, 시장구조화는, 매우, 급격한,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 요약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다변화화의 확대에, 따라, 기업간 경쟁이, 발생, 외, 시장,의, 차단, 시장,의, 형태, 재생, 주된,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단일, 수요, 시장은, 대부분, 하여, 그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다변화를, 통한, 기업성장의, 민감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다수기업, 복합기업의, 비례, 시장에, 정착, 시장규모, 의, 변화, 시장,의, 주체의, 적합, 시장규모,에, 의한, 경제,의, 시장을, 적합히, 시장규모, 하여, 이와, 함께, 단독, 중소기업의, 성장, 요구도, 하는, 것이, 급속히, 시장규모, 및, 공정한, 시장, 정책의, 주요, 문제로, 대두된다.

참고문헌

- 經濟企劃院,『製造工業統計調査報告書』, 1981年.
- 李奎巖,『市場構造與獨占規制』, 韓國開發研究院, 1977年.
- 安納文, 徐敏敬,『韓國製造業的產業集中分析』, 1981年.
- Rowley, Charles K., ed., Readings in Indus

Singer, E.M., Antitrust Economics: Selected

## 附表1 産業別成長率(1977～81)

<table>
<thead>
<tr>
<th>産業コード</th>
<th>産業名</th>
<th>専業従業数</th>
<th>頭上率</th>
<th>出荷</th>
<th>産業別</th>
<th>休業</th>
<th>産業別</th>
<th>出荷</th>
<th>休業</th>
</tr>
</thead>
<tbody>
<tr>
<td>31</td>
<td>飲食料品及び飲料</td>
<td>4,621</td>
<td>2.9</td>
<td>172</td>
<td>0.4</td>
<td>6,067</td>
<td>25.9</td>
<td>2,433</td>
<td>22.8</td>
</tr>
<tr>
<td>32</td>
<td>銅製、衣類及び家具</td>
<td>8,468</td>
<td>3.1</td>
<td>654</td>
<td>-0.2</td>
<td>8,041</td>
<td>26.2</td>
<td>3,051</td>
<td>29.2</td>
</tr>
<tr>
<td>33</td>
<td>絹製、衣類及び家具</td>
<td>2,294</td>
<td>1.4</td>
<td>63</td>
<td>-2.6</td>
<td>963</td>
<td>17.9</td>
<td>231</td>
<td>13.8</td>
</tr>
<tr>
<td>34</td>
<td>重化学製品、印刷出版</td>
<td>2,587</td>
<td>6.5</td>
<td>91</td>
<td>1.7</td>
<td>1,772</td>
<td>32.4</td>
<td>641</td>
<td>28.9</td>
</tr>
<tr>
<td>35</td>
<td>化学肥料、石油、石炭、ガソリン</td>
<td>3,331</td>
<td>7.9</td>
<td>262</td>
<td>2.4</td>
<td>12,453</td>
<td>38.4</td>
<td>3,079</td>
<td>31.6</td>
</tr>
<tr>
<td>36</td>
<td>金属製品</td>
<td>2,626</td>
<td>10.8</td>
<td>92</td>
<td>4.5</td>
<td>1,756</td>
<td>30.0</td>
<td>767</td>
<td>27.4</td>
</tr>
<tr>
<td>37</td>
<td>第1次金屬</td>
<td>961</td>
<td>9.7</td>
<td>88</td>
<td>5.9</td>
<td>4,451</td>
<td>40.2</td>
<td>1,296</td>
<td>41.2</td>
</tr>
<tr>
<td>38</td>
<td>重化学製品</td>
<td>7,433</td>
<td>9.6</td>
<td>544</td>
<td>3.8</td>
<td>9,593</td>
<td>32.1</td>
<td>3,601</td>
<td>28.7</td>
</tr>
<tr>
<td>39</td>
<td>他</td>
<td>1,210</td>
<td>5.4</td>
<td>78</td>
<td>-1.0</td>
<td>746</td>
<td>32.5</td>
<td>314</td>
<td>31.5</td>
</tr>
<tr>
<td>40</td>
<td>全製造業</td>
<td>33,431</td>
<td>5.7</td>
<td>2,044</td>
<td>1.6</td>
<td>45,831</td>
<td>31.8</td>
<td>15,413</td>
<td>28.8</td>
</tr>
</tbody>
</table>

注: 1) 産業別増加率で製造業 中分類別 GNP ナップサーサーを表す。

## 附表2 出荷及輸出100大企業の産業別分布(1981)

(単位：億)

<table>
<thead>
<tr>
<th>小分類産業名</th>
<th>出荷基準</th>
<th>輸出基準</th>
</tr>
</thead>
<tbody>
<tr>
<td></td>
<td>1〜50位</td>
<td>51〜100位</td>
</tr>
<tr>
<td>食料品</td>
<td>6</td>
<td>5</td>
</tr>
<tr>
<td>飲料品</td>
<td>0</td>
<td>4</td>
</tr>
<tr>
<td>酒類</td>
<td>1</td>
<td>0</td>
</tr>
<tr>
<td>繊織</td>
<td>7</td>
<td>7</td>
</tr>
<tr>
<td>衣類</td>
<td>1</td>
<td>4</td>
</tr>
<tr>
<td>木材</td>
<td>0</td>
<td>0</td>
</tr>
<tr>
<td>製材</td>
<td>0</td>
<td>0</td>
</tr>
<tr>
<td>産業用化學製品</td>
<td>5</td>
<td>10</td>
</tr>
<tr>
<td>化學製品</td>
<td>0</td>
<td>0</td>
</tr>
<tr>
<td>矿物製品</td>
<td>4</td>
<td>1</td>
</tr>
<tr>
<td>金属製品</td>
<td>3</td>
<td>2</td>
</tr>
<tr>
<td>金属製品</td>
<td>0</td>
<td>1</td>
</tr>
<tr>
<td>機械製品</td>
<td>0</td>
<td>0</td>
</tr>
<tr>
<td>産業用化學製品</td>
<td>2</td>
<td>1</td>
</tr>
<tr>
<td>第1次繊維製品</td>
<td>8</td>
<td>3</td>
</tr>
<tr>
<td>第1次金属製品</td>
<td>0</td>
<td>2</td>
</tr>
<tr>
<td>金属製品</td>
<td>0</td>
<td>0</td>
</tr>
<tr>
<td>機械製品</td>
<td>2</td>
<td>1</td>
</tr>
<tr>
<td>電気機械製品</td>
<td>4</td>
<td>3</td>
</tr>
<tr>
<td>運輸機械製品</td>
<td>7</td>
<td>4</td>
</tr>
<tr>
<td>金屬製品</td>
<td>0</td>
<td>0</td>
</tr>
</tbody>
</table>
### 〈附表 3〉 产业别 出荷集中率 变化(1977～81)

<table>
<thead>
<tr>
<th>中分類産業名</th>
<th>CR₂ 低下幅(%)</th>
<th>CR₂ 上昇幅(%)</th>
</tr>
</thead>
<tbody>
<tr>
<td></td>
<td>-20%</td>
<td>-20%～-5%</td>
</tr>
<tr>
<td>飲食物品及び洋酒</td>
<td>3</td>
<td>6</td>
</tr>
<tr>
<td>糖製品及び果物</td>
<td>7</td>
<td>13</td>
</tr>
<tr>
<td>食材・木材及び家具</td>
<td>3</td>
<td>5</td>
</tr>
<tr>
<td>金属・金属製品及び印刷出版</td>
<td>1</td>
<td>8</td>
</tr>
<tr>
<td>化学・薬品及び薬刺</td>
<td>5</td>
<td>10</td>
</tr>
<tr>
<td>非金属・金属製品及び機械装備</td>
<td>2</td>
<td>4</td>
</tr>
<tr>
<td>その他</td>
<td>3</td>
<td>6</td>
</tr>
<tr>
<td>計</td>
<td>40</td>
<td>75</td>
</tr>
</tbody>
</table>

### 〈附表 4〉 100大商品市場構造(1981)

<table>
<thead>
<tr>
<th>市場名</th>
<th>出荷額(%)</th>
<th>商品名</th>
</tr>
</thead>
<tbody>
<tr>
<td>食品</td>
<td>2,278</td>
<td>乳製品、現成製品、スナック食品、穀物製品、糖類製品</td>
</tr>
<tr>
<td>糖製品</td>
<td>1,100</td>
<td>乳製品、現成製品、スナック食品、穀物製品、糖類製品</td>
</tr>
<tr>
<td>非金属製品</td>
<td>13,611</td>
<td>金属製品、現成製品、スナック食品、穀物製品、糖類製品</td>
</tr>
<tr>
<td>競争</td>
<td>8,276</td>
<td>金属製品、現成製品、スナック食品、穀物製品、糖類製品</td>
</tr>
</tbody>
</table>

注：*の商品は1981年に新設100大商品に含まれる。

### 〈附表 5〉 同質性指数の中分類産業別分布

<table>
<thead>
<tr>
<th>産業名</th>
<th>同質性指数(1981)</th>
<th>同質性指数変化幅(81～71年)</th>
</tr>
</thead>
<tbody>
<tr>
<td></td>
<td>0.0～0.2</td>
<td>0.2～0.4</td>
</tr>
<tr>
<td>飲食料品及び洋酒</td>
<td>6</td>
<td>7</td>
</tr>
<tr>
<td>糖製品及び果物</td>
<td>7</td>
<td>13</td>
</tr>
<tr>
<td>食材・木材及び家具</td>
<td>1</td>
<td>6</td>
</tr>
<tr>
<td>金属製品及び印刷出版</td>
<td>1</td>
<td>6</td>
</tr>
<tr>
<td>化学物産</td>
<td>5</td>
<td>7</td>
</tr>
<tr>
<td>競争</td>
<td>3</td>
<td>10</td>
</tr>
<tr>
<td>第1次产业</td>
<td>6</td>
<td>5</td>
</tr>
<tr>
<td>貿易業・集荷品及び機械装備</td>
<td>20</td>
<td>27</td>
</tr>
<tr>
<td>其他</td>
<td>2</td>
<td>2</td>
</tr>
</tbody>
</table>

37